

비전은 하나님으로 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으로

# 상식이 통하는 교회

## 교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 고민

만 하기보다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 공개

합니다. 교회개혁의 노력을

## 그리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 민주적 정관과 의사결정 방식
-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 투명한 재정관리와 공개 및 회계감사
- 세상을 향한 적극적 나눔

그리고 당신의 의견으로 만들어질 개혁안..

## 이런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안내

2006년 12월 3일

주일 오후 3시 복사골문화센터 5층

### 한국교회의 7가지 문제점

뉴스엔조이 김종희 기자

###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영상

###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

예인교회 운영위원장 홍순호 권사

### 간담회

예인교우와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

-교회다운교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최 :  예인교회 [www.yein.org](http://www.yein.org)

T. 032) 328-0692

후원 : 교회개혁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http://www.protest2002.org)

뉴스엔조이

[www.newsnjoy.co.kr](http://www.newsnjoy.co.kr)

WAY  
OF  
YEIN

7월 21일 주일 예인교회(담임목사 정성규)에서 열린 교인총회는 작은 축제였다. 교인총회가 축제가 될 덕이 있겠는가 싶지만, 분명히 작은 축제였다. 한 시간 조금 넘게 모두들 웃고 박수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행복해했다.

**예인교회의 교인총회는 '작은 축제'**  
 평신도 중심 운영위원...건물 안 갖는 교회 유지 방침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세운 지 2개월. 이날 총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제 맘대로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첫 번째 실험무대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결정됐다. 하나는 '교회규약 제정'이고, 하나는 '운영위원 선출'이다. 이 두 가지 결정사항 안에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다.

우선, 예인교회 규약에서 눈에 띄는 점들을 보자. 매년 1월에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정기총회를 연다. 여기서 교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예·결산 및 부동산 소유·관리·처분 등 재정문제를 결정하고, 규약 개정·운영위원 선출 등을 처리한다. 그리고 총회에서는 운영위원을 선출하며 구성된 운영위원은 어느 교회의 당회 내지 제직회 정도이다. 이 부분들은 보통 교회에서 연말에 열리는 공동의회와 형식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예인교회 운영위원회 구성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 특징은 운영위 구성에 있어 첫째, 7인 이내의 평신도와 1명의 담임목사가 참여한다. 평신도의 임기는 1년이고, 해마다 정기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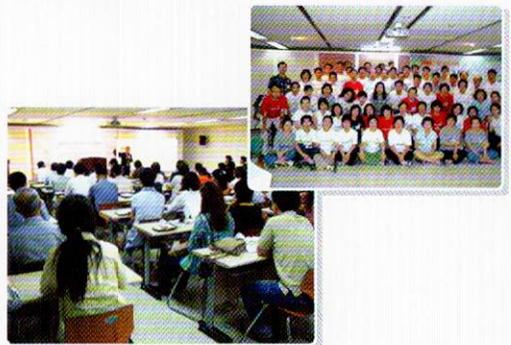
담임목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홍순호 권사는 "처음 정성규 목사님이 먼저 '목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도록 하자'고 했을 때 다들 놀랐다. '그래도 8분의 1 정도의 의결권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지만, 본인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담임목사의 역지가 문제가 되는 세상이라지만, 이런 억지라면 부리면 부릴수록 교회는 행복해질 것 같다.

둘째, 이날 선출된 일곱 명의 운영위원 중 여(女)집사가 두 명이다. 투표를 하기 전 누군가가 "이왕 개혁할 거 여성이 더 많으면 좋겠다"면서 두 명의 여권사를 후보로 더 추천했다. 본인들이 "운영위원 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어렵다"면서 즐겁게 고사한 것이나, 사회자가 "여성 두 명이나 참여하는 것도 파격인데 더 늘리자면 이걸 혁명이다"고 하는 농담에도 모두들 즐거워했다. 이 정도면 축제라고 봐도 충분하지 않은가.(중략)

이날 총회가 끝난 뒤부터는 '예인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연속 기도회'가 시작된다. 여섯 장짜리 안내지에는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이 빼곡이 채워져 있다. 이 기도제목들을 찬찬히 읽고 기도해나가는 동안 굴 속처럼 알차게 여물어갈 것이다.

뉴스엔조이 200. 10. 20





## \* 오늘의 한국교회는 두 가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교회는 자생의 전망마저 암울할 정도로 물량주의적, 기복적, 이원론적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혁을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가 힘들다.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일상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한국교회의 현 상황이 면죄부로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던 중세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새삼 확인한다. 교계정치가 금권에 의해 좌우되고, 무허가 신학교들이 무자격의 목회자를 양산하며, 대표적 신학교들이 신학적 독단과 편견에 의해 장악되고, 기성교회들이 비성경적, 비복음적 관행과 타성에 젖어 온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들이 독단적 사제주의를 신성화하는 목회자의 설교에 귀머고, 화려한 교회장식과 장엄한 의식에 눈먼 사이, 교회의 재정은 온갖 명목의 현금과 금융 차입의 세속적 사술(邪術)로 변하고, 교회의 교제는 유유상종의 친목회로 전락해 갔으며, 교회의 구제는 연민과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관례적 체면 세우기로 빠져들었다.

세속의 권력과 재력 그리고 학연과 지연 같은 온갖 인연의 끈들이 교회의 위계구조에 그대로 반영되는 상황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양식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수많은 평신도들은 교단과 교회정치의 횡포 앞에 무력하게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의 선포가 마땅히 복음의 실천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불의는 한국 크리스천들의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한국사회의 어둠과 부패를 지레 선도(先導)하는 범죄자들을 일상적으로 배출해 오면서, 세속의 기준조차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참담한 윤리부재의 상황을 재생산해 왔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개신교가 등록된 종교 가운데 가장 많은 신도를 확보하고, 사회지도층 인사의 절대다수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에 접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자랑 아닌 낮뜨거운 현실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국교회는 무감각하고, 무비판적이며, 무기력한 "교회인"을 양산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구체적 일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투철한 "신앙인"을 길러내는 일에는 명백히 실패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창립선언문 중에서

## \* 모범정관이 한국교회 개혁을 가져온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백종국 오세택)가 9월 22일 경기도 군포 신율교회(이문식 목사)에서 교회 정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연대의 '한국교회 희망 만들기' 전국 투어의 수도권 도입으로, 서울·안산·성남 등지에서 모범 정관에 관심을 가진 40여 명의 교인들이 참가했다. 백종국 교수(경상대)는 '한국교회의 모범 정관에 대하여'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모범 정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제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다"며 "성직자를 일반 교인과 구분하는 것과 성직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쥐 전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회에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관이 도입되면 교회 직분이 평등해지고, 의사 결정이 민주화되고, 재정 역시 투명해 질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모범 정관은 제도를 개혁하면서 사람의 의식도 개혁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이 만든 제도라 불완전할 수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노력을 한다면 정관은 한국교회의 개혁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관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 이후에는 실제로 정관을 운용하고 있는 4개 교회(신율교회·예인교회·시흥교회·두레교회)가 사례를 밝혔다.

뉴스앤조이2006년 9월18일자 기사중에서



## 익명의 그리스도인, 당신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과 첫 사랑에 빠져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며 살던 모습이 부끄러워

교회 마루바닥을 뒹굴며 회개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어려운 시절,

예배당을 짓기 위해 과분한 희생을 하면서도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는 것만으로 감사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예배당을 완공하는 날,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린 것 같아서 감동, 감사하여

새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행복했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횡, 무리한 건축, 세습, 기복주의,

현금강요, 불투명한 재정운영, 이웃사랑 외면, 부도덕성 등...

얼룩진 상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다 상처 입고 교회를 등진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을 예인가족의 관심으로 초대합니다.

예인교회

##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2006.12.3.(주) 오후 3시. 복사골문화센터 5층

- **진행** : 김태용권사(준비팀장)
- **자기소개** : 테이블별 자기소개 및 인사(테이블 리더)
- **찬양** : 안태훈전도사
- **세미나 1** : [한국교회의 7가지 문제점] 김종희기자(뉴스앤조이)
- **영상** :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 **세미나 2** :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노력] 홍순호권사(운영위원장)
- **지역모임** : 허심탄회한 시간
- **후속모임 소개** : 정성규목사
- **찬양과 기도** : 안태훈전도사
- **대화** : 자유롭게

**예인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하여 2002년 7월 21일 창립된 교회입니다. 2006년 12월 현재 어린이 포함 171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연합]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예인교회는 구약의 광야교회와 신약의 초대교회 이상을 따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 “복음전파와 나눔의 공동체”를 실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을 통해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